

지배음운론에서 본 ‘ㄴ’모음

허 용(Univ. of London)

I

1. 머리말

우리말의 ‘ㄴ’모음은 참으로 주목할만한 것이다. 이것은 중세 국어의 아래 아(‘.’)를 포함한 이 방면의 연구가 방대하다는 데에서도 알 수 있다. 그런데 지금까지의 ‘ㄴ’에 대한 논의는, 거의 모두가 [막으며]와 [울:며]에서와 같이, 형태소 경계를 사이에 두고 일어나는 현상을 다룬 것들이었다. 그렇지만 이에 대해서도 우리는 완전한 합의를 보지 못한 채 지금도 논란이 그치지 않고 있다. 그것은 아마도 우리가 너무 한쪽 면에만 매달려 전체를 보지 못해서 그런 것이 아니었나 한다. 다시 말해, 우리말의 ‘ㄴ’은 어간과 어미의 결합에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형태소 안에서도 얼마든지 볼 수 있는 혼한 것이므로, 이에 대해서도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이다. 만약, 형태소 안에서의 ‘ㄴ’의 성격에 대해 어느 정도 확실한 정보를 가질 수 있다면, 위와 같이 형태소 경계를 사이에 두고 일어나는 ‘ㄴ’에 대한 문제도 좀더 확실히 밝혀질 것이다. 이 글에서는, 이러한 목적 아래에서, 형태소 안의 ‘ㄴ’모음에 대해 생각해 보도록 한다.

사실, 우리는 그동안 형태소 안의 ‘ㄴ’모음에 대해서는 거의 무시하여 왔다. 그것은 ‘ㄴ’모음에 대한, 지금까지의 우리의 태도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이다. 즉, ‘ㄴ’을 ‘ㄷ’나 ‘ㄹ’ 등과 같은 모음과 별 차이가 없다고 생각하였다. 그러나 ‘ㄴ’은 다른 모음들과는 달리, 낱말 안에서 그것이 나타나는 위치를 예측할 수 있는 것이다.

그 첫째로, 우리말에서 모음으로 끝나는 낱말 중에는 ‘ㄴ’로 끝나는 낱말이, 다른 모음으로 끝나는 낱말에 비해 적다. 유재원님의 <우리말 역순사전>에 의하면, 형태소 끝에 ‘ㄴ’모음이 나타나는 낱말은 모두 501개로, 빈도 수에 있어 21개의 모음 중 일곱 번째에 해당한다고 되어 있으나, 대개의 경우 ‘르’ 불규칙 용언이나 ‘까르르’와 같은 의성어 또는 의태어들이다. 그런데 주지하는 대로, ‘르’ 불규칙 용언

은 실제로 ‘르’로 끝나는 낱말인지 의심스럽고(예를들어, 기저형을 김차균님(1971)과 같이 /Xl²⁰l/ 정도로 잡는다면, 이러한 낱말들은 ‘ㄴ’로 끝나는 것이라 할 수 없다.), ‘까르르’나 ‘짜르르’와 같은 것은 실제의 소리를 그대로 표기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이렇게 본다면, 우리말에서 실제로 ‘ㄴ’로 끝나는 낱말은 40여 개의 ‘으’탈락 용언들, ‘그’라는 대명사, 그리고 ‘어느’와 ‘어느’ 정도이다.”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이들을 좀더 자세히 살펴보면, ‘으’탈락 용언의 반 이상이 ‘쓰-’, ‘트-’와 같은 단음절로 된 낱말들이거나 ‘슬프-’, ‘미쁘-’와 같은 ‘프/쁘’ 계열의 형용사들로 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의문은 왜 우리말에서는 기본적으로 형태소의 끝에 ‘ㄴ’가 올 수 없는가 하는 것에서 출발한다. 둘째로, 만약 어떤 이유에 의해, 우리말의 형태소 끝에는 원칙적으로 ‘ㄴ’모음이 올 수 없다면, 위에 지적한 ‘으’탈락 용언들은 분명히 문제가 되는 것들이며, 따라서 이들은 음운론적 설명을 요하는 것들이다.

한편, 형태소 내부의 ‘ㄴ’도 우리의 관심을 끌기에 충분하다. 예를 들어, ‘가르치다’와 ‘머느리’라는 두 낱말을 비교하며, 전자(前者)는 ‘갈치다’로, ‘ㄴ’모음이 삭제될 수 있는데 반해, 후자(後者)는 절대로 삭제되지 않는다(만약 억지로 삭제하면 음운의 변동이 일어나고 만다.). 그러므로 문제는, 어느 경우에 ‘ㄴ’가 삭제될 수 있는가 하는 것이다. 또, 우리말에는 단일어로서의 ‘설마’나 ‘만큼’과 같은 낱말은 있어도, ‘서르마’, ‘마느름’같은 말은 쉽게 찾아 볼 수 없다. 그러므로 우리는 또 하나의 의문이 생긴다. 그것은, 언제 ‘ㄴ’모음이 나타나는가 하는 것이다. 무엇보다도, 더 근본적으로 ‘ㄴ’은 왜 이러한 성질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도 밝혀져야 할 것이다.

이러한 여러 의문점에 대하여, Kaye, Lowenstamm, Vergnaud(이하 KLV로 약(略)한다.)를 중심으로 발전된 지배 음운론(Government Phonology)은 상당히 설득력 있는 해결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이 글에서는 지배 음운론의 중심이론을 대략적으로 소개하면서, 위의 문제

1) 이 숫자는 물론 ‘ㄴ, ㄴ, ㄴ, ㄴ’ 등과 같은 모음으로 끝나는 것보다는 많은 것이지만, 다른 단모음의 것보다는 훨씬 적은 것이다. 참고로 <우리말 역순사전>에 따르면, ‘ㄴ’로 끝나는 낱말은 9,998개, ‘ㄴ’로 끝나는 낱말은 5,499개, ‘ㄴ’로 끝나는 낱말은 1,639개, ‘ㄴ’로 끝나는 낱말은 1,231개, ‘ㄴ’로 끝나는 낱말은 741개, ‘ㄴ’로 끝나는 낱말은 671개, ‘ㄴ’로 끝나는 낱말은 271개이다.

점들을 다음의 세 가지로 요약하여 살펴 보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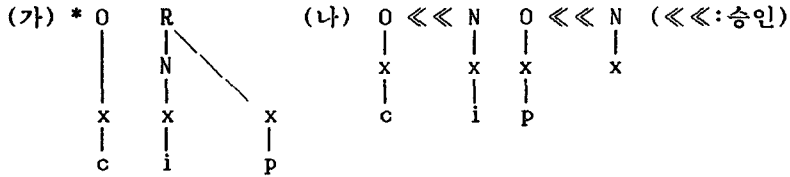
- 가. 형태소 내부의 ‘_’
- 나. 형태소 끝의 ‘_’
- 다. ‘으’탈락 용언

2. 승인 원리(Licensing Principle)와 빈자리 원리(Empty Category Principle)

지배 음운론의 이론은 음절구조에서부터 출발한다. 음절구조에 나타나는 음절머리(onset)나 음절핵(nucleus)같은 음운적 구성요소(phonological constituent)들은 음절 구조상에 나타나기 위하여서는 일정한 자격을 갖추어야 하는데, 이렇게 자격을 갖추는 것을 승인(licensing)이라 한다. 승인을 받지 않아도 되는 요소는 주어진 음절구조의 중심 또는 머리(head)가 되는 음절핵인데, 머리 음절핵을 제외한 다른 모든 음절핵은 실제의 소리값을 가질 경우, 이 머리 음절핵으로부터 승인을 받는다. 그리고 음가(音價)를 지닌 음절머리들은 다음에 이어 나오는 음절핵으로부터 승인을 받는다. 그렇기 때문에, 지배 음운론이 내세우는 음절구조는 음절머리(O)와 음절핵(N)의 연속이라고 할 수 있다. 다만, 음절꼬리자리(rhymal position 또는 post-nuclear position)는 두 자음(C₁, C₂)이 연속될 때만 가능하며, 그것도 첫째 자음이 둘째 자음에 의해서 지배될 때만 승인된다(Coda Licensing Principle, Kaye 1990b).²⁾ 이런 이유로, 우리말의 ‘집’은 다음의 (1가)의 구조가 아니라, (1나)의 구조로 짜여진다. (보통 CV 층이라고 불리는 x의 음절구조 안에서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이미 여러 학자들이 언급하였기에 여기서는 그 설명을 줄이기로 한다.)

2) 여기서 말하는 지배란, 음절 끝자리의 자음보다 뒤에 나오는 음절머리의 자음이 그 강도(또는 지배 계급)에 있어서 상위에 있는 것이라야 한다는 것이다. 지배 계급에 대해서는 뒤에 언급하도록 하겠다.

(1) 집



음절꼬리 승인 원리에 의하면, ‘집’의 받침 ‘ㅂ’은, 이를 승인해 줄 또 다른 자음이 뒤따르지 않기 때문에 (1가)에서와 같이 음절 꼬리에 연결되는 것은 잘못이며 (1나)처럼 음절머리와 연결되어야 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 음절머리 뒤에는 승인 원리에 따라 이를 승인해 줄 음절핵이 와야 한다. 그런데 이 음절핵에는 해당하는 소리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마지막 음절핵은 비어있을 수밖에 없다. 이 빈 음절핵을 ‘음절 구조의 구간 끝 빈 음절핵(domain-final empty nuclei, 이하, 줄여서 ‘구간 끝 빈 음절핵’)’이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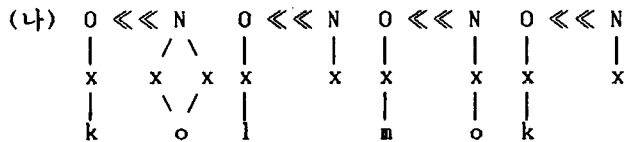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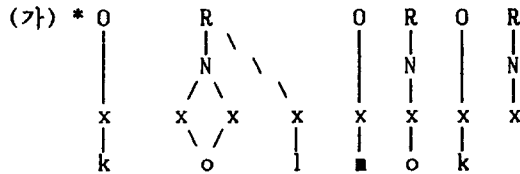
빈 음절핵은 이와 같이 낱말의 끝에서만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한 낱말의 안에서도 나타난다. 그것은 지배 음운론이 내세우는 또 하나의 주장인, 음절 구조 안에서의 모든 자리는 최대 두 개 이상의 가지(branch)를 수용할 수 없다는 데서 비롯된다(Binary Theorem). 즉, 영어나 기타 구미어의 낱말의 첫머리에 나타나는 겹자음(예: tree)이나, 장모음은 다음과 같이 두 개의 x를 갖는다.

(2) (가) 겹자음 [tree] (나) 장모음 [a:]



이와 같은 논리와 위에서 말한 승인 원리를 토대로 하면, 우리말의 /골:목/과 같은 낱말은 (3가)가 아닌, (3나)와 같은 음절구조로 짜여 지게 된다.

(3) 골:목



위의 구조에서 (3가)의 첫 Rime은 세 개의 x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배 음운론이 주장하는, 음절 구조 안에서의 모든 자리는 최대 두 개 이상의 가지를 수용할 수 없다는 규정을 위반하는 것이 된다. 그러므로 장모음 다음의 ‘r’은 (3나)에서와 같이 음절머리에 귀속되어야 하며, 이 음절머리 다음에는 승인 원리에 따라 음절핵이 와야 한다. 그런데 이 음절핵은 해당하는 음운이 없으므로, 빈자리가 될 수밖에 없다. 이러한 음절핵을 ‘음절구조의 구간 내(內)의 빈 음절핵 (domain-internal empty nuclei, 이하, 줄여서 ‘구간내 빈 음절핵’)’이라 한다.

그런데 이러한 빈 음절핵들은 해결해야 할 문제점을 안고 있다. 그 첫째는, 이들 빈 음절핵에 대한 승인 문제이다. 이들은 실제의 소리가 없어, 승인 원리의 적용을 받지 못한다. 그렇다고 승인 원리를 빈 자리까지 무작정 확대할 수는 없다. 이것은, 우리가 편리한대로 빈 음절핵을 음절 구조 안에 넣을 수 있게 하여, 결국 이론으로서의 가치를 상실하게 한다. 둘째는, 빈 음절핵 앞에 오는 음절머리에 대한 승인 문제이다. 승인 원리는 오로지 음가가 있는 경우에만 적용되기 때문에, 이 문제 또한 해답이 필요한 것이다.

이에 대해 지배 음운론은 다음과 같은 빈자리 원리(Empty Category Principle)를 제시하고 있다.

(4) 빈자리 원리(Empty Category Principle, Kaye 1990a)

가. 승인된 빈자리 음절핵(licensed empty nucleus)은 발음되지

않는다.

나. 빈 음절핵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승인된다.

- i. 적정지배(滴正支配, proper government)될 때 또는
- ii. 음절구조의 구간 끝 빈 음절핵을 승인하는 언어의 음절 구조의 구간 끝에 올 때.

위의 (4나)의 (i)은 '구간 내(內) 빈 음절핵'에 관계된 것이고, (ii)는 '구간 끝 빈 음절핵'에 관계된 것이다. 그런데 이 빈자리 원리는 단순히 위에서 내세운 여러 원리들의 구멍을 메우기 위한 것이 아니다. 이것은 음운론의 아주 중요한 현상을 설득력있게 설명해 주고 있다. 이제 그것을 살펴 보도록 하자.

3. 빈 음절핵(Empty Nuclei)

[막으며]와 [울:며] 등과 같은 예에서 보이는 규칙적인 모음의 교체(vowel alternation with zero)는 비단 우리말에만 보이는 현상이 아니고, 비슷한 현상이 다른 언어에서도 나타난다. 예를 들어, 불어에서는 [fort](강하다)와 [fortamã](강하게)에서처럼 [ə]가, 모로코-아랍어에서는 [kitbu:](書 -3인칭 복수)와 [ktib](書 -3인칭 단수)에서 보듯이, 우리말과 같은 [ɨ]가, 폴란드어에서는 [cuker](설탕 -주격)와 [cukru](설탕 -소유격)에서처럼 [e]가, 세르비아-크로아티아어(Serbo-Croatian)에서는 [lakai](팔꿈치) [lakta](팔꿈치 -소유격)에서와 같이 [a]가 각각 [ø](零)와 규칙적인 교체를 한다. 이들에 대한 설명으로 여러 제안이 있었으나, 대체로 각자의 언어에 국한하는 독자적인 것들이었다.³⁾ 그러나 지배 음운론에서는 위와 같은 규칙적인 모음교체 현상을 공통적으로 꿰뚫어 흐르는 맥이 있다고 믿는다. 그 맥은 두 가지로 요약되는데, 그 하나는 교체하는 모음 자체에 관

3) 예를들어, 불어에 대해서는 Dell(1973), Selkirk(1978), Anderson(1982), Noske(1982), 모로코-아랍어에 대해서는 Kaye, Ech-Chadli & El Ayachi(1986), 폴란드어에 대해서는 Gussmann(1980), Rubach(1984, 1985), Booji & Rubach(1984, 1987), Rubach & Booji(1985), Spencer(1986, 1988), 세르비아-크로아티아어에 대해서는 Bochner(1981) 등이 있다.

한 것이고, 다른 하나는 교체현상에 대한 설명 방법이다. 전자에 대한 지배 음운론의 입장은, 교체를 보이는 모음들은 그 기저형에 실제의 모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그 음절핵이 비어있다(empty)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위에서 말한 빈 음절핵인 것이다. 그리고 이들을 '구간 내(內) 빈 음절핵'과 '구간 끝 빈 음절핵'으로 나누어 설명한다. 이제 그것들을 차례대로 살펴보자.

3-1. 구간 내 빈 음절핵(Domain-internal Empty Nuclei)

구간 내(內) 빈 음절핵에 대한 승인 및 이에 대한 모든 문제는, 빈 자리 원리 (4나)의 (i)에 나타난대로 적정지배로 설명하는데, 적정지배는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5) 적정지배(Proper Government, Charette 1990b)

음절핵 α 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빈 음절핵 β 를 적정지배한다.

가. α 가 β 를 지배할 때(이 경우 α 와 β 는 지배자층위(level of licenser projection)에서 바로 인접해야 한다.)

나. α 는 빈 음절핵으로 승인된 것이 아니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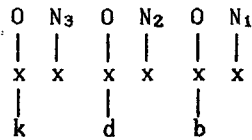
이에 의하면, 기저형에서의 빈 음절핵은 비지 않은 음절핵(non-empty nucleus)으로부터 적정지배되면, 이 자리는 빈 상태로 남아 발음이 되지 않는다. 이것을 뒤집어 말하면, 만약 빈 음절핵이 비지 않은 음절핵으로부터 적정지배되지 못하면 발음이 된다는 것이다. (5가)의 괄호 속의 내용은 지배하는 음절핵이 지배할 수 있는 범위를 밝힌 것으로, 지배자와 피지배자는 서로 이웃하는 음절핵이어야 한다는 것이다.⁴⁾

보다 쉽게 이해를 하기 위해, 모로코-아랍어의 두 단어 tan[kdib] 'I lie'와 tan[kidbu:] 'we lie'에서의 모음교체를 예로 들어 보도록 하자(Kaye 1990a). 대괄호로 묶인 두 단어에서 보듯이, 모로코-아랍어의 경우엔 [i]가 [ɔ]와 교체를 한다. 그러므로 [i]가 위치한 자리는 기저형에서 빈 음절핵인 것인데, 이들은 음절 구조 안에서 적정지배 받지 못하여 발음된다는 것이 지배 음운론의 주장이다. 이 주장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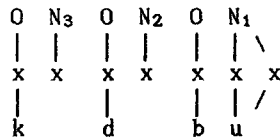
4) 이에 대한 자세한 논의는 Charette(1990b)를 참조할 것.

시비를 음절 구조를 통해서 알아 보자.

(6) 가. 단수 [kdib]



나. 복수 [kidbu:]



단수의 경우에는 (6가)에서 보듯이, 세 개의 빈 음절핵이 있고, 복수의 경우엔 마지막 모음을 제외한 두 군데의 음절핵이 비어 있다 (논의의 편의를 위해 번호를 붙인다.). 이들 중 구간 끝 빈 음절핵을 제외한 나머지는 빈자리원리와 적정 지배규정에 따라, 이웃한 비지 않은 모음에 의해 적정지배되면, 승인되어 발음이 되지 않고, 적정지배되지 않으면 발음이 된다. 모로코-아랍어에서의 적정지배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작용한다.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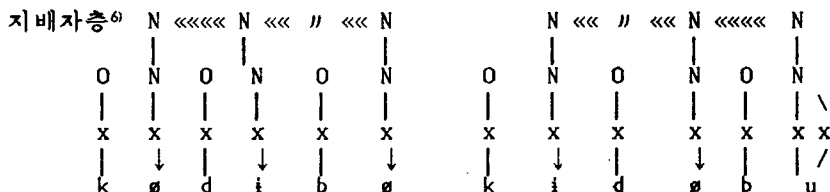
(6가)의 마지막 모음 N₁의 경우는 구간 끝에 나타나는 빈 음절핵이므로 뒤에 논의하기로 하고, 먼저 두 구조의 두번째 음절핵 N₂부터 살펴보자. 이 자리는 비어 있고, 또 구간 내에 있는 것이므로, 빈자리원리의 (4나ii)의 적용을 받는다. 즉, 이들이 바로 다음에 오는 음절핵 N₁으로부터 적정지배되면 (즉, N₁이 비어 있지 않으면), 빈자리로서 승인되지 못하여 발음되어야 한다. 먼저 (6가)의 N₂는 그 다음에 오는 N₁ 자리가 비어 있으므로, 적정지배되지 못하여, 빈자리로서 승인받지 못한다. 승인받지 못한 빈 음절핵은 (4가)에 의해 발음된다. 앞에서 말한대로, 모로코-아랍어는 우리말과 같이 [i] 모음 교체를 하므로, 빈자리로서 승인받지 못한 N₂는 [i] 모음으로 발음된다. 그러면 (6나)의 경우는 어떠한가? (6나)의 N₂는, 그 다음에 오는 음절핵 N₁이 [u:] 모음으로 채워져 있으므로, N₁의 적정지배를 받는다. 따라서 (6나)의 이 자리는 승인되어, 발음되지 않는다. 끝으로, 양쪽구조의 첫 음절핵 N₃에 대해 알아 보자. 이 경우에도 모든 구간 내(內)의 빈 음절핵이므로, 적정지배에 의해 그 발음 여부가 결정된

5) 우리는 잠정적으로, 적정지배는 모든 언어에 공통적으로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작용한다고 가정한다.

다. 먼저, (6가)의 N₂는 빈 음절핵이지만 승인받지 못하여 발음되는 것이므로, 앞에 오는 N₁에 대해 적정지배자로서의 자격을 갖는다. 다시 말해, (6가)의 N₃은 N₂로부터 적정지배를 받아 빈자리로 승인된다. 따라서, 이 자리는 발음될 특별한 이유가 없다. 반면에, (6나)의 N₃은 빈자리로 승인받지 못한다. 왜냐하면, 다음에 오는 N₂가 승인된 빈 음절핵이므로, N₁에 대해 적정지배자로서의 자격을 갖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리하여 위의 두 구조는 다음과 같은 도출형을 갖게 되며, 우리가 원하는 결과 [kdib]와 [kidbu:]를 각각 얻게 되는 것이다.

(7) 가. 단수 [kdib]

나. 복수 [kidbu:]



이상에서 간단히 살펴본 바와 같이, 빈자리 원리와 적정지배는 음절구간 안에 있어서의 모음 교체를 논리적으로 설명해 준다. 모음 교체에 대한 이러한 설명은 모로코-아랍어에만 가능한 것이 아니라, 위에 든 모든 언어에 다 적용된다.⁷⁾ 이렇게 볼 때, 빈자리 원리는 음절구조상 생기는 빈 음절핵 -이것은 결코 우연히 생기는 것이 아니다.-의 승인뿐만 아니라, 여러 언어에서 보이는 모음 교체를 잘 설명한다고 하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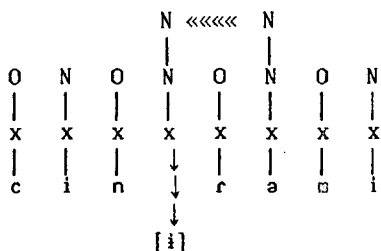
그런데 우리말의 경우는 어떨까? 즉, 우리말의 형태소 내부의 ‘_’ (예를들어, ‘나그네’나 ‘지느러미’ 등의 ‘_’)를 빈 음절핵으로 잡고, 이 자리에서의 ‘_’의 발음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설명할 수 있을까? 불행하게도 그렇지 않은 것 같다. 왜냐하면, 아래의 음절 구조에서 보듯이 빈 음절핵 다음에 오는 지배자가 실제 모음을 보유하고

6) 지배자층에 대한 논의는 Charette(1990b)를 참조할 것.

7) 불어에 대해서는 Charette(1988, 1991), 폴란드어에 대해서는 Kaye(1991), 허용(1992), 톱가와어(Tongkawa)에 대해서는 Yoshida(1990), 세르비아-크로아티아어에 대해서는 허용(1992)을 참조할 것.

있음에도 불구하고, 빈 음절핵은 여전히 발음되고 있기 때문이다.

(8) 지느러미



우리말의 위와 같은 현상은 확실히 지배 음운론에 대한 커다란 반격이다. 이에 대한 답은 잠시 뒤로 미루고, 구간 끝에 나타나는 빈 음절핵에 대해 먼저 생각해 보도록 하자.

3-2. 구간 끝 빈 음절핵(Domain-final Empty Nuclei)

우리는 위에서 ‘집’이라는 낱말의 음절 구조에서, 구간 끝 빈 음절핵이 나타남을 보았다. 이 빈 음절핵에 대한 승인 및 음운 현상은 빈 자리 원리 (4나)의 (ii)를 재인용하도록 한다.

(4나ii) 음절 구조의 구간 끝 빈 음절핵을 승인하는 언어의 구간 끝에 오는 빈 음절핵은 승인된다.

이 말에 의하면, 언어에는 ‘구간 끝의 빈 음절핵’을 승인하는 언어와 그렇지 못한 언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면 그 두 부류의 차이는 무엇일까? 그것은, 그 언어가 자음으로 끝나는 낱말을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에 의해 결정된다. 그런 낱말을 가지고 있는 언어는 구간 끝 빈 음절핵을 승인하는 언어이며, 그렇지 않은 언어는 이 자리를 승인하지 못한다. 전자의 경우, 구간 끝 빈 음절핵은 빈 자리 원리 (4나)의 (ii)에 따라 승인되어 발음이 되지 않는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첫머리에 가졌던 의문에 대한 답이다. 즉, 우리말은 자음으로 끝나는 낱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구간 끝의 빈 음절핵을 승인하는 언어인 것이다. 만약, 우리말이 ‘_’ 모음 교체를 가지는

언어라면(다시말해, 우리말의 승인받지 못한 빈 음절핵이 ‘_’ 모음으로 실현된다면)⁸⁾, 우리말에는 ‘_’ 모음으로 끝나는 낱말이 없거나, 있어도 극히 적을 수밖에 없다. 그러나 일본어처럼 구간 끝 빈 음절핵을 승인하지 못하는 언어는 이 자리가 비어 있을 수 없다. 따라서, 영어의 /straik/ ‘strike’라는 단어는 일본어에서 ‘스트라이키(데모)’ 또는 ‘스트라이쿠(야구용어)’로 발음된다. 즉, 영어에는 비어있는 구간 끝 음절핵이 일본어에서는 발음되는 것이다.”

이제 다음의 새로운 규정을 살펴보며, 우리말의 구간 내부의 빈 음절핵에 대해 논의해 보자.

4. 음절머리 사이의 지배(Inter-onset Government)와 우리말의 ‘_’

위에서, 언어는 구간 끝 빈 음절핵을 승인하는 것과 그렇지 못한 것으로 나뉜다는 사실을 되새기면서, 여기서는 좀더 깊이 들어가, 구간 끝 빈 음절핵을 승인하는 언어들 사이에는 어떤 차이가 없느냐 하는 점을 고려해 보도록 하자. 사실, 구간 끝 빈 음절핵을 승인하는 언어들도 승인하는 정도가 다르다. 영어의 /milk/나 불어의 /qatr/ ‘넷’에서 보듯이, 구간 끝의 빈 음절핵은 그 앞에 두 자음이 오는 것을 승인하나, 우리말의 경우엔 그렇지 못하며(예: ‘흙’[혹]), 나아가서 소위 중화 규칙에 의해 된소리, 거센소리, 마찰음, 파찰음 등이 도출형의 낱말 끝에 오지 못한다. 결국, 우리말의 구간 끝 빈 음절핵은 승인된 것이기는 하지만, 앞에 오는 음절머리를 승인하는 면에서는 영어나 불어에 비해 그 힘이 약하다고 하겠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사실로, ‘음절머리 사이의 지배’에 영향을 미친다. ‘음절머리 사이의 지배’란 승인된 빈 음절핵을 사이에 둔 음절머리 사이의 상호관계를 나타내는 것이다. 이것은 영어나 불어에서는 볼 수 없으며, 우리말을 비롯한 몇 개의 언어에만 나타난다. 예를들어, 영어의

8) 사실 이것은 용언의 ‘_’계 어미를 보아서도 확실한 것이다. 그렇지만 좀더 명확히 하기 위해 구간 내부의 빈 음절핵을 살펴본 후에 결정하도록 하자.

9) 우리말도 일본어와 같이 [스트라이크]로 마지막에 ‘_’모음을 넣어 발음한다는 지적이 있을 수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뒤에 설명하도록 하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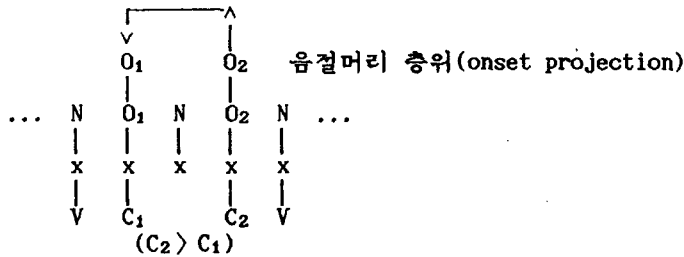
(10) 우리말에 있어서의 자음의 지배 계급

i. 음성자음 > 중성자음

- ii. 음성자음(negatively charmed consonants: C⁻): 경음, 격음
 중성자음(neutrally charmed consonants: C⁰): 평음 > 비음
 > 유음¹¹⁾

둘째는 두 음절머리 사이의 지배 방향이다. 위에서 보듯이, 계급이 더 높은 자음이 두 음절머리 중 뒤에 오지 않으면, 동화가 일어나므로, 뒤음절머리가 앞음절머리를 지배한다고 볼 수 있다. 이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다. 여기서 새겨 둘 것은, 두 음절머리상의 지배 방향은 언어마다 다를 수 있으나, 우리말의 경우는 항상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향한다는 것이다.

(11) 음절머리 사이의 지배



11) Charm이론(KLV 1985, 1988)에 의하면, 자음은 음성(negative)과 중성(neutral)으로 나뉘고, 모음은 양성(positive)과 중성(neutral)으로 나뉜다. 음성자음은 우리말의 된소리, 거센소리와 /b, d, g, z/ 등과 같은 유성의 파열음, 마찰음, 파찰음을 포함한다. 여기서 말하는 유성음이란, 일반적으로 기저형에서의 것을 뜻하므로, 우리말에는 이에 해당하는 것이 없다. 비음과 유음은 (10)에 나타난 대로 중성자음에 속한다. 그런데 (10)에 보인 것은 지배 이론에서 주장하는 것과는 조급의 차이가 있다. 지배 이론에서는, 다른 여러 언어의 예를 들어 비음이 평음보다 강하다고 주장한다(KLV 1988, Harris 1990). 만약, 자음에 있어서의 지배 계급의 순위가 모든 언어에 공통적인 것이라면, (10)에 보인 것은 재고의 여지가 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말의 비음과 평음은 서로 지배하지 못한다는 이상직님의 개인적인 생각은 음미할 가치가 있는 것이다. 아뭏든, 이에 대해서는 앞으로 더 깊은 연구가 필요하다.

이제, 자음의 지배계급과 음절머리 사이의 지배를 엄두에 두면서, 다음의 낱말들을 살펴보자. 우리의 논의가 형태소와 관련된 것이기에, 단일어로 된 순 우리말만 고려하고자 한다.

(12) 가. 서툰, 심부름, 버릇, 가륙, 무릎, 아늑, 바늘, 스승, 비듬, 조금, 선뜻

나. 임:금, 골:목, 설*마, 얼*굴, 벌*써, 먼*저, 성*큼, 숨*씨, 국*수, 곱*추, 시금*치, 심*부름, 빙*그레, 달*보래-하다

다. 고드름, 겨드랑이, 지느러미, 머느리, 가까스로, 부스레기, 나그네

먼저, (12가)에 대해 살펴보자. 여기에 보인 예들은, 마지막 음절에 ‘_’ 모음이 들어 있는 낱말들이다. 이제, 우리말의 ‘_’ 모음을 빈 음절핵으로 잡고, ‘_’가 들어 있는 자리를 빈 음절핵으로 간주하며, (12가)의 예들을 적정지배로 풀어 보자. 이 낱말들은 모두 자음으로 끝난 것이므로, 아래와 같이 마지막 음절머리 다음에 빈 음절핵이 뒤따르게 된다. ‘구름’이라는 낱말을 예로 들어 보도록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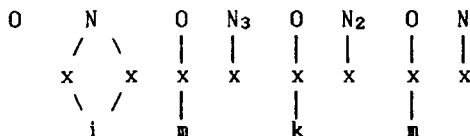
(13) 구름

O	N	O	N ₂	O	N ₁
x	x	x	x	x	x
k	u	r		m	

위에서 말한 대로, 우리말은 자음으로 끝나는 낱말을 가지고 있으므로, 구간 끝에 나타나는 빈 음절핵을 승인한다. 그러므로 위 구조의 N₁은 발음되지 않는다. 그런데 이 N₁은 비어 있으므로, 앞의 빈 음절핵 N₂에 대해 지배자가 되지 못한다. 따라서 적정지배받지 못한 N₂는 빈자리로 승인되지 못하여 발음되어야 한다. 우리말에서 승인되지 못한 빈 음절핵은 ‘_’ 모음으로 발음되므로, N₂ 자리에 ‘_’ 모음이 채워져, 위의 구조는 ‘구름’으로 발음된다. 이에 반하여, (12나)의 예들은 *표에 나타나듯이, 두 자음 사이에 ‘_’ 모음이 없다. 그런데 ‘임:금’이나 ‘골:목’을 제외하고는, 이들이 어떤 음절 구조를 갖는지 분명하지는 않다. 그것은 ‘음절 꼬리 승인원리(Coda

Licensing)'에 의하면, 'ㄹ'이 음절 꼬리에 오는 구조가 되겠지만, 만약 우리말이 CVC 형태가 아닌 CV 언어라면¹²⁾ 그 'ㄹ'은 음절머리에 위치하게 되고, 그 다음에 빈 음절핵이 뒤따르게 된다. 그러나, '입:금'이나 '굴:목'같은 낱말은 (3나)에서 보았듯이, 장모음으로 인해 음절핵이 생긴다. 여기서는 '입:금'을 가지고 논의해 보자.¹³⁾

(14) 입:금



위의 구조에는 '금'에 나타나는 'ㅡ'까지 포함하여 세 개의 빈 음절핵이 있다. 그 중 맨마지막의 것은 구간 끝에 나타나는 것이므로, 위에서 이미 본대로 발음되지 않는다. 그 앞의 두 개의 빈 음절핵은, 구간 내부의 것이므로 적정지배에 의해 설명된다(위에서 우리말은 적정지배에 의해 설명되지 않는다고 하였으나, 문제점이 나타날 때까지는 적정지배로 설명하도록 한다.). 그러므로 이들은 바로 다음에 나오는 모음으로부터 승인을 받으면 발음되지 않고, 승인을 받지 못하면 'ㅡ' 모음으로 발음될 것이다. N₂는, 지배자의 위치에 있는 N₁이 비어 있으므로, 적정지배되지 못하여 'ㅡ'로 발음이 될 것이다. 그러나 N₃는 N₂의 지배를 받아 발음되지 않는다. 그것은 N₂가 빈 음절핵이기는 하지만 승인받지 못한 것이어서(즉, 발음이 되는 것이어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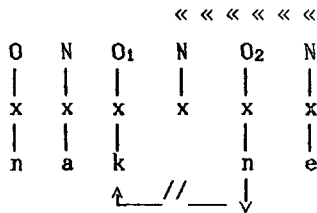
12) 이에 대한 논의는 많은 문제가 얽혀 있는 것이기에, 선불리 다룰 성질의 것이 아니다. 다만, 우리말이 CV 형태의 언어일 수 있는 가능성이 여러 곳에서 발견된다는 것을 밝히는 정도로 그친다.

13) 혹자는 지배 음운론이 내세우는 음절 구조에 문제가 있다고 하겠지만, 우리의 관심은 이미 말한 바와 같이, '다리미, 가라지, 도리깨, 도무지, 사마귀, 까마귀, 소나기, 시나브로, 푸네기' 등은 낱말로 존재하면서도 왜 유독 'ㅡ' 모음이 들어간 형태 '다르미, 가르지, 도르깨, 도르지, 사르기, 소르기, 시르브로, 서르마, 어르굴, 버르췌, 머느저'같은 말은 없는가 하는 것이다. 이에 대해서는 아래에 다시 언급하도록 한다.

지배자로서 자격을 갖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우리는 [입:금]이라는 모습의 낱말을 갖게 되는 것이다.

이제 우리의 관심은 (12다)로 넘어 간다. 위에서 밝혔듯이, 이들은 지배 음운론에 커다란 도전이 되는 것들이다. 왜냐하면, 굵은 글씨로 표기된 음절 속의 ‘_’ 모음들은 예외없이 그다음 음절에 적정지배자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발음 속에 나타나기 때문이다. 여기서 우리는 앞에서 밝힌 우리말의 자음의 지배 계급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12다)에 나타나 있는 낱말들은 모두 (11)의 음절머리 사이의 지배에 어긋나는 것들이다. ‘나그네’라는 낱말을 예로 들어, 그 구체적 형편을 알아 보자.

(15) 나그네



이 구조에서 보듯이, 이 낱말의 빈 음절핵은 다음 음절핵으로부터 적정지배를 받는다. 그러나, 이 빈자리를 둘러싸고 있는 자음들 사이의 지배 관계가 우리가 요구하는 것, $O_1 < O_2$ 와는 다르다. 다시말해, 이 구조의 빈 음절핵이 적정지배를 받음에도 발음이 되는 것은, 빈자리 오른쪽에 있는 자음이, O_1 에 있는 자음보다 지배 계층에 있어 상위에 있지 못하기 때문이다.¹⁴ 즉, 적정지배를 받더라도, 주위의 자음들 상호간에 지배관계가 성립하지 않으면, 빈 음절핵은 발음하게 되는 것이다. 이것은 (12나)의 예로 입증된다. 이들은 연속된 두 자음 (C_1, C_2)이 모두 $C_1 < C_2$ 에 어긋남이 없기 때문에, 모음의 길이에 관계없이 두 자음 사이에 ‘_’ 모음이 나타나지 않는 것이다. 이 문제를

14) 단, 유음은 같은 계급인 또 다른 유음을 지배할 수 있다(예: 벌레). 이것은 아마 유음보다 더 낮은 계급이 없어서 그럴 것이다. 그리고 ‘국수’와 같은 경우는, 연속된 두 자음을 같은 계급이라 할 수 없다. 그것은 맞춤법에 의한 것일 뿐, 실제로는 분명코 /국쑤/인 것이다.

확실히 매듭짓기 위하여, (12나)의 예와 주석 13에서 제시한 낱말들을 비교해 보도록 한다.

(16) 다리미, 가라지, 도리깨, 도무지, 사마귀, 까마귀, 소나기, 시나브로, 푸네기

이들은 (12나)에 있는 예들과 자음사이의 지배 환경이 같다. 즉, 굵은 글씨로 된 글자들 속에 있는 자음들을 살펴보면, 뒷자음이 앞자음보다 지배계급에 있어서 상위에 있음을 알 수 있다. 똑같은 환경의 두 자음 사이에서, 다른 모음은 나타나지만(16 참조), ‘—’ 모음은 나타나지 않는다(12나 참조). 전자의 경우는, 각각의 모음이 해당하는 음절핵을 채우고 있는 경우이어서 적정지배와는 무관한 것이며, 같은 환경에서도 ‘—’ 모음이 나타나지 않는 것은 그 자리가 비어 있고, 적정지배를 받기 때문인 것이다. 사실, 우리말 전체를 통해 음절머리 사이의 지배관계와 적정지배를 만족시키면서 그 사이에 ‘—’ 모음이 나타나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

음절구간 내부의 ‘—’에 관한 논의의 마지막으로 다음의 예를 살펴보자.

(17) 가. 만*들-다, 선*뜻, 한*테, 반*기-다, 숨*씨, 함*께, 잡*치-다, 녹*초, 벽*채, 억*척
나. 느긋-하다, 느끼-다, 느티-나무, 그치-다, 드티-다, 스치-다

(17가)의 예들은, *표를 중심으로 하는 두 자음 사이에 지배 관계가 성립되어 ‘—’ 모음이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같은 지배 관계라도 이것이 첫 음절핵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면, (17나)의 예들에서 보는 바와 같이, ‘—’ 모음이 발음되고 있으며, 이 ‘—’는 (12가)의 ‘버릇, 바늘’과 같은 낱말들처럼 결코 생략되는 법이 없다. 즉, 만약 첫음절에 나타나는 이 ‘—’를 생략하면, 우리는 발음이 불가능한 낱말을 갖게 되는 것이다. 그런데 이것은 단순히 우리말이 어두(語頭)에 자음군을 허용하지 못하기 때문에서만은 아니다. 왜냐하면, 어두에 자음군을 허용하는 불어의 경우에서도 방언에 따라서는 아래와 같

이 어두의 빈 음절핵을 생략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Charette 1990a).

	퀘벡-불어	페르시아-불어
(18)	petit [ptí]	[patí] (작다)
	cheval [ʃfál]	[ʃafál] (말-馬)

(18)에서 보면, 퀘벡-불어는 첫음절핵에 [a]가 없는데, 페르시아-불어는 같은 자리에서 [a]를 발음한다. 즉, 퀘벡-불어의 첫음절핵은 다음 음절핵으로부터 적정지배를 받는데 대해, 페르시아-불어의 첫음절핵은 적정지배를 받지 않는다. Yoshida(1990)에 따르면, 페르시아-불어와 같은 현상이 통카와어(Tongkawa)에서도 발견된다고 한다. 이를 ‘적정지배의 부적용성(inaccessibility for proper government)’이라 하는데, 첫음절에 대한 적정지배의 적용은 언어마다 다르다. 이렇게 본다면, 우리말은 어두에 자음군이 오지 못한다는 사실과 함께, ‘적정지배의 부적용성’이 작용하여 (17나)와 같은 현상이 일어난다고 하겠다.

이제, 우리말의 빈 음절핵의 승인에 대한 결론을 맺을 때가 되었다. 우리말의 빈 음절핵은 첫째로, (12가)에서 보았듯이, 적정지배되지 못하는 경우에는 발음이 된다. 그리고 둘째로는 (12다)에서 같이, 음절머리 사이의 지배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도 빈 음절핵은 승인되지 못하여, ‘_’로 발음이 된다. 그리하여 우리는 다음과 같은 하나의 원칙을 세울 수 있다.

(19) 한국어의 빈 음절핵 승인

한국어의 첫음절을 제외한 빈 음절핵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승인된다.

- i. 음절 구조의 구간 끝에 올 때
- ii. 적정지배되며, 동시에
- iii. 음절머리 사이의 지배관계가 성립할 때

우리는 지금까지 우리말에 있어서의 빈 음절핵 승인에 대한 기본적인 면을 살펴보았다. 그것은 우리말의 ‘_’는 빈 음절핵으로 해석할 수 있으며, 그 빈 음절핵은 (19)의 원칙으로 설명할 수 있다는 것이

다. 이제 우리의 궁금증은 다음의 것들로 넘어간다.

첫째, 위의 (19)의 조건을 만족시키는 낱말 중 ‘ㄷ’로 발음되는 것은 없는가?

둘째, 만약 있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가?

구간 끝의 경우는 다음 장(章)에서 따로 살피도록 하고, 여기서는 구간 내의 경우를 보도록 한다. 단적으로 말해, (19)의 조건을 만족시키면서도 ‘ㄷ’를 발음하는 낱말들이 많지는 않지만, 존재하고 있기는 한다. 그들 중에는 어느 정도 설명이 가능한 것도 있고, 또 현재로서는 아무런 답을 제시할 수 없는 것들도 있다. 아래 (20가)의 경우가 전자에 속하며, (20나)의 경우가 후자에 속한다.¹⁵⁾

(20) 가. i. 가르치다

ii. 부르팍, 어르신, 바느질, 그르치다, 다그치다, 일으키다, 부르트다, 부르건다, 부르쥬다, 부르짖다, 흐느끼다

나. 흐느적, 게르치, 누르미, 아느작 (하느작)

위의 (20)의 낱말들은, 원칙 (19)에 의하면, 굵은 글씨로 쓴 음절의 ‘ㄷ’는 필요 없는 것들이다(사실 ‘ㄷ’가 없어도 음운의 변동은 일어나지 않는다.). 그런데 이들을 자세히 살펴보면, (20가)의 낱말 중, ‘가르치다’를 제외하고는 사실 단일어라고 보기 어려운 낱말들이다. 즉, ‘부르팍, 어르신, 바느질’은 각각 ‘부름, 어른, 바늘’과 관련되어 있음은 명백한 사실이고,¹⁶⁾ ‘그르치다, 다그치다, 일으키다’들

15) 참고로 (20)에 제시한 낱말들은 유재원님의 <우리말 역순사전>에 실린, ‘ㄷ’ 모음을 가진 낱말들을 총망라하여 가린 것임을 밝힌다. 그런데 ‘가느다랗다’, ‘노르스름하다’, ‘파르스름하다’ 등과 같이 분명한 복합형태소 용언이나 ‘찌르찌르’와 같은 의성어와 의태어 같은 것은 고려 대상에서 제외시켰다. 뽑는 데 있어서의 실수나 <우리말 역순사전>에 실리지 않은 것을 감안하더라도, 실제 예외의 수효는 이들의 두 배는 넘지 않을 것이다. 어쨌든, 여기에 따르는 모든 문제는 철저하게 필자의 책임이다.

16) ‘가르치다’와 ‘부르팍’은 각각 ‘갈치다’와 ‘물팍’의 형태가 일부

은 다음과 같이 비슷한 단일어가 있음을 본다. 따라서, 이들은 각각의 어근에 접사가 붙은 것으로 보인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을 진정한 의미에서의 예외라 하기 힘들다.¹⁷⁾

- (21) 그르치다 ~ 그르다, 다그치다 ~ 다그다, 일으키다 ~ 일다,
부르뜨다 ~ 뜨다, 부르걷다 ~ 걷다, 부르쥘다 ~ 쥘다, 부르짖다 ~ 짖다

그리고 마지막 남은 낱말 ‘흐느끼다’는, 이희승 편저 <국어대사전>에 의하면 ‘흐-느끼다’로 분석되어 있으며, 그 뜻은 ‘혹혹 느끼어 울다’로 되어 있다. 그러므로, 이 말은 ‘혹 (한 번 흐느끼는 소리) + 느끼다’로 볼 수 있는 것이다. 그러기에, 우리말에서 원칙(19)에 어긋나는 것은 (20나)에 보인 낱말 정도가 아닌가 한다.

II

5. 승인되지 않은 구간 끝 빈 음절핵(Unlicensed Final Empty Nuclei)¹⁸⁾

우리말의 음절 구간 끝에 오는 빈 음절핵은 승인된 것이라는 사실을 상기하면서, 이에 예외적이라는 ‘으’탈락 용언에 대해 살펴 보도록 하자. 아래에 우리말의 ‘_’탈락 용언의 어간들을 모두 열거하였다.

- (22) 가. 트, 크, 끄, 쓰, 뜨
나. 슬뜨, 구슬뜨, 서글뜨, 어:셀뜨, 가날뜨, 고달뜨, 시뜨, 무뜨, 고프, 헤:뜨, 아프, 시쁘, 미쁘, 기쁘, 뉘우쁘, 구쁘, 예:쁘, 어여 뿌, 바쁘, 나쁘, 가쁘
다. 들뜨, 징그, 능그, 잠그, 담그, 무릅쓰

지역에서 존재함을 확인할 수 있다.

17) 이들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설명이 요구되나, 아직은 완벽한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다.

18) 이것은 허용(1991)을 수정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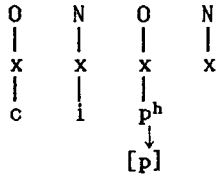
라. 모으, 치르, 우러르, 파르, 다다르, 그느, 무느, 노느,
꼬느, 더느, 다그

이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외래어의 차용에 나타나는 ‘_’를 생각해 보도록 하자. 예를 들어, 영어의 ‘bus’는 우리말에서는 [버스]로 발음되는데, 영어에서 빈 음절핵이, 어째서 구간 끝 빈 음절핵을 승인하는 우리말에서 발음이 되는 것일까? 그것은, 위에서 말한 대로, 우리말의 구간 끝 빈 음절핵이 마찰음 /s/를 승인하지 못하기 때문일 것이다. 즉, 승인하지 못하는 소리는 승인된 빈자리 앞에서 중화되어야 함이 우리말의 일반적인 현상이지만, 위의 경우엔 영어의 발음을 그대로 지켜주기 위한 노력으로, 우리말의 구간 끝 빈 음절핵의 특성을 포기하는 것이라 하겠다. 이것은 영어의 ‘strike’의 우리말 발음을 보면 더 분명해진다. 이 단어는 [스트라이크]와 [스트라이크]의 두 가지 발음이 가능한데, 마지막 자음 /kʰ/를 지킬 때는 반드시 ‘_’를 수반한다. 다시 말해, 외국어의 차용에 있어 우리말의 구간 끝 빈 음절핵이 승인하지 못하는 자음이 그 앞에 올 때는, 우리말의 구간 끝 빈 음절핵은 일본어와 같이 승인되지 않은 것이 되어, 그 자리는 ‘_’ 모음으로 발음된다. 이런 점에서 볼 때, (22)의 모든 낱말들은 그 끝 빈 음절핵이 승인되지 않은 것이라 하겠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여기에서도 (22다,라)에 대해선 아직 해결안이 없으므로, 이 글에서는 앞의 두 경우만 보도록 하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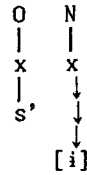
첫째로, (22가)의 낱말들의 끝에 오는 빈 음절핵이 승인되지 않은 것은, 그들이 음성자음을 가진 동시에 단음절이기 때문이다. 여기서 말하는 단음절은, /짚/이 단음절이라는 사실과 다르다. /짚/도 어간 말에 음성자음을 차지고 있는 것은 (22가)의 낱말들과 다를 바가 없지만, 전자는 (23가)에 보듯이 음절 구조에 있어 두 개의 음절핵을 가지고 있는데 비해 (22가)의 낱말들은 단 한 개의 음절핵밖에 없다. 이 자리는 소리값이 없으면 발음이 불가능하므로, 어느 경우에도 될 수 없는 자리이다.

(23) 가.

짚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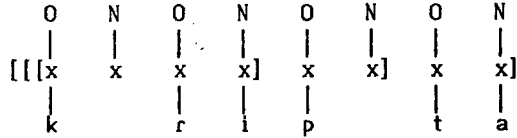
나. 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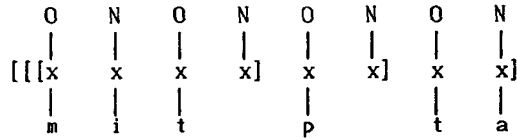
그런데 (22가)의 낱말들이 모두 음성자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그것은 아마 이들의 음절핵을 구간 내부의 첫 음절핵으로만 볼 수 없다는 것을 뜻할 것이다. 만약 이들을 구간 내부의 첫음절핵으로만 여긴다면, 우리는 왜 우리말에 ‘느다, 드다’와 같이 중성자음으로 된 용언이 없는가에 대해 설명하지 못할 것이다. 따라서 우리말의 구간 끝 빈 음절핵은 음성자음을 승인하지 못한다는 음운론적 현상이 여기에 적용되지 않을까 한다. 물론, 우리말에 이와 같은 것을 우연으로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간단히 처리해 버리면, (22가)의 낱말들이 음성자음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특성을 버려야 하는 안타까움이 남아 있게 된다.

(22나)의 낱말들의 승인되지 않은 구간 끝 빈 음절핵에 대한 설명을 위해서는 이기문님의 연구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ㅂ-’는 동사 어간에 연결되는데, 그 말이 모음이면 ‘-ㅂ-’, ‘ㄷ’이면 ‘-ㅃ/브-’, 그 밖의 자음이면 ‘-ㅂ/브-’로 나타난다.”(1972:151-152). 음성학적인 면을 고려하지 않고 이를 종합하면, 모음으로 끝난 어간에 붙는 접사는 ‘ㅡ’(또는 아래 아)가 없고, 자음으로 끝난 어간 다음에는 접사에 ‘ㅡ’(또는 아래 아)가 나타난다고 하겠다. 이제, 이기문님의 연구에 근거하여, (22나)에 있는 낱말들을 모두 파생된 것으로 가정하면, 이들의 파생되기 전의 모습은 모두 어간말에 자음을 가지고 있다는 논리가 성립된다. 이를 음절 구조화하면 다음과 같다. (24가)는 모음으로 끝난 어간 다음에 접사가 붙은 경우이고, (24나)는 자음으로 끝난 어간 다음에 접사가 붙은 경우이다.

(24) 가. 그림다



나. 밑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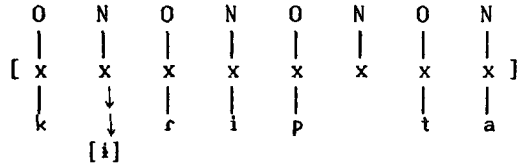


먼저, 위의 형용사 파생 접사는 분석적 어미(Analytic suffix 또는 Cyclic suffix)임을 밝힌다. 이에 대한 자세한 논의는, Kiparsky (1982)를 비롯한 많은 학자들이 여러 차례에 걸쳐 언급하였으므로 여기서는 생략하기로 하고, 다만 우리말에 있어서는 자음으로 시작하는 조사 '과'나 어미 '다', '고' 같은 것이 이에 속한다는 것만 밝힌다. 이들은 어간말 자음을 중화시키는데(예: /짚과/ → [짚과]),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중화는 구간 끝 빈 음절핵 앞에서 이루어지므로, 어간말 자음과 분석적 어미 사이에는 구간 끝 빈 음절핵이 있는 것이다. 어간말 자음과 분석적 어미 사이에 구간 끝 빈 음절핵이 있다는 것은 어간이 하나의 독립적인 구간을 이룬다는 것을 뜻한다. 그리하여, (24)에 예로 든 낱말들은 [어근 # 형용사 파생접사 # 어말 어미]의 세 개의 구간(phonological domain)을 가지고 있으며, 각 구간의 끝마다 구간 끝 빈 음절핵을 가지고 있다. 이와는 반대로, '으'계열 또는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나 조사는 비분석적(Non-analytic 또는 Non-cyclic)으로 연결되어, [어간 + 어미] 또는 [어근 + 접사]가 하나의 구간을 이루게 되고, 그에 따라 구간 끝 빈 음절핵은 맨 마지막 한 곳에만 나타난다.

이제 (24)의 두 구조를 살펴보자. 먼저 (24가)의 가장 안에 있는 구간에는 첫음절핵이 비어 있다. 이 자리는 첫자리이므로, 적정지배와 관계없이 'ㅡ'로 발음된다. 첫 구간에서는 더 이상의 음운 현상이 적용될 것이 없으므로, 두번째 구간으로 넘어간다. 두번째 구간은 어

근을 포함하여 형용사 접사까지이다. 여기에는 빈 음절핵이 있다. 이 빈 음절핵은 구간 끝에 위치한 것이므로, 승인되어 발음되지 않는다. 이제 세번째 영역으로 넘어 가 다음의 구조를 살펴보자. 세번째 구간은 ‘그립다’ 전체를 포함하는 구조이다.

(25) 그립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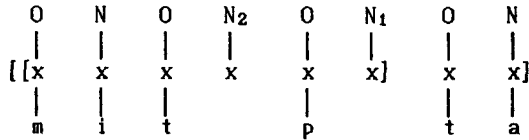


(25)에 보이는 빈 음절핵은 바로 위에서 말했듯이, 구간 끝 빈 음절핵이므로, 어떤 경우에도 발음되지 않는 것이다. 그런데 이 빈자리 주위에 두 자음이 있다. 그러므로 (11)에서 말한 자음 사이의 지배 관계가 두 자음 사이에 성립되어야 한다.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자음사이의 지배 관계는 뒤음절핵의 자음이 앞의 것보다 강하게 나타나야 한다. 만약 (24가)의 경우와 같이, 두 자음이 같은 계급이어서 이 관계가 성립하지 못하면 두 자음 사이에는 원만한 지배 관계를 이루기 위한 어떤 작용이 반드시 나타난다. 이상직님(1992)에 의하면, 무성음 다음의 된소리되기는 이 관계를 이루기 위한 것이라 한다.¹⁹⁾ 이를 따르면, 우리는 [그립따]의 발음을 얻게 되는 것이다.

다음으로, (24나)의 구조를 살펴보자. 이 구조에도 세 개의 구간이 있다. 첫번째 구간에는 구간 끝 빈 음절핵이 있다. 이 자리는 승인된 것이므로 발음되지 않는다. 이 구간에서는 적용될 더 이상의 음운현상이 없으므로, 우리는 두번째 구간으로 넘어간다. 아래에 보인 대로 두번째 구간은 어근과 형용사 파생접사를 포함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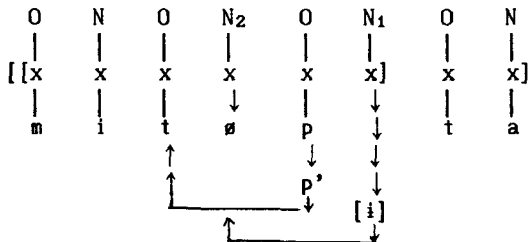
19) 만약 뒷자리에 된소리가 될 수 없는 음운이 오면 앞자음과 동화를 이루게 된다. 그리고 비분석적 어미가 올 경우에는 두 자음의 지배 관계와 적정지배에 따라 중간의 빈 음절핵의 ‘_’ 모음 발음이 결정된다(예: 감으며/울며). 그러나, 이것은 결코 간단한 것이 아니다. 자세한 논의는 허용(1992)을 참조할 것.

(26) 밭브다



논의의 편의를 위해 번호를 붙이도록 한다. N₂는 반자리로 승인된 것이고, 그 주위에는 두 개의 자음이 있으므로,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 두 자음 사이에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의 지배 관계가 성립해야 한다. 그런데, /t/과 /h/은 같은 계급이다. 따라서 이 관계를 이루기 위해 뒷자음인 'h'이 된소리 'ㅃ'으로 발음된다. 여기까지는 '그립다'에서 본 것과 별 차이가 없다. 이제 N₁을 보자. 이 자리는 승인된 구간 끝 빈 음절핵이므로, 발음이 되어서는 안되는 곳이다. 그런데 우리의 실제 발음은 이 자리를 분명히 'ㅡ'로 발음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일까?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 우리는 (22가)에 나타난 현상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즉, 우리말의 빈 음절핵은 음성자음을 승인하지 못한다. 승인하지 못한다고 음성자음 'ㅃ'을 발음하지 않을 수도 없다. 왜냐하면, 그것은 파생접사를 없애는 일이기 때문이다. N₁을 발음하지 않고 앞의 음성자음을 중화시키는 일도 부질없는 것이다. 그 이유는, 우리말의 빈 음절핵은 연속되는 두 자음을 승인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즉, N₁을 비워둔 채 't'과 'h'을 다 발음할 수는 없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에게 주어진 길은 아래와 같이 오로지 N₁을 발음하는 방법 외에는 아무 것도 없다.

(26) 밭브다



다시말해, 앞의 두 자음 사이의 지배관계를 승인해 주기 위해서 N₁

은 마땅히 발음되어야 한다(이를 Charette(1990b)는 지배-승인원리(Government-licensing)라 하였다.). 이로 보아, 우리말의 형용사 파생접사는 두 가지 또는 세 가지로 나누어지는 것이 아니라, ‘ㅂ + 빈 음절핵’이라고 하겠다.

지금까지 우리는 두 경우의 ‘으’탈락 용언을 살펴 보았다. 앞에서 말한 대로 나머지 두 경우에 대해선 이렇다하게 내세울 만한 것이 없다. 얼른 보아서, (22다)에 대해서도 빈 음절핵이 두 자음을 승인하지 못한다는 것으로 설명이 가능할 것 같으나, 그것은 그리 간단하지 않다. 왜냐하면, /없다/나 /뵈다/의 경우도 두 자음이 있는데, 이들은 두 자음 중 하나를 탈락시켜 발음하기 때문이다. 둘 사이에는 분명히 다른 점이 있을텐데, 현재로서는 그것을 알 길이 없다. (22라)의 경우는 더욱 심각하다. 빈 음절핵 앞의 자음이 음성자음인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두 자음이 겹쳐 있는 것도 아니다. 이들에 대해선 더 깊은 연구가 필요하다.

III

지금까지 우리는 지배 음운론의 입장에서 우리말의 ‘ㅡ’모음의 성격과 그에 따른 음운현상을 살펴 보았다. 결국, 우리말의 ‘ㅡ’는 그것이 구간 내부의 것이든 구간 경계를 넘어선 것이든 빈 음절핵이며, 이는 빈 음절핵 원리와 음절머리 사이의 지배 관계에 의해 설명된다고 하겠다. 따라서 지금까지의 [막으며]와 [울:며]에 나타나는 ‘ㅡ’모음의 교체는 이를 바탕으로 재고할 필요가 있다 하겠다. 끝으로, ‘ㅡ’모음과 관련된 것으로, (22다,라)의 경우와 함께 해결해야 할 숙제가 하나 더 있음을 밝히면서 이 글을 막으려 한다. 그것은, ‘으뜸’이나 ‘으스름’과 같이 ‘으’로 시작하는 낱말들이다.

참고문헌

- 김차균(1971). “변칙용언연구”, 한글 147.
- 유재원(1985). 「우리말 역순사전」, 정음사.
- 이기문(1972). 「국어사개설」, 탑출판사.
- 이병근(1979). 「음운현상에 있어서의 제약」, 국어학연구 선서 8, 탑출판사.
- 이상직(1991). “Neutralization revisited”, Paper presented at The 4th Havard International Symposium on Korean Linguistics, Havard.
- (1992). Korean Consonantal Phonology, Ph.D. Thesis, SOAS, University of London.
- 이희승(1982). 「국어대사전」, 민중서림.
- 허 용(1989a). “Final empty nuclei in Korean”, ms, SOAS.
- (1989b). “Empty nuclei and the cold vowel”, ms, SOAS.
- (1990). “Empty nuclei in Middle Korean”, Working Papers in Linguistics and Phonetics 1, SOAS, University of London.
- (1991). “Unlicensed domain-final empty nuclei in Korean”, Paper presented at The London School: Then and Now, London.
- (1992). Empty Category and Korean Phonology, Ph.D. Thesis, SOAS, University of London.
- Anderson, S.(1982). “The analysis of French schwa: or, how to get something from nothing”, *Language* 58.3.
- Bochner, H.(1981). The $l \rightarrow \emptyset$ rule in Serbo-Croatian, in *Havard Studies in Phonology V.II*(ed.G.N.Clements), Havard.
- Booji, G.E. & J. Rubach(1984). Morphological and Prosodic domains in Lexical Phonology, *Phonology Yearbook* 1.
- (1987). Postcyclic versus postlexical rules in Lexical Phonology, *LI*, 18.1.
- Charette, M.(1988). Some Constraints on Governing Relations in Phonology, Ph.D. thesis, McGill University.
- (1990a). The effect of floating consonants on word-final empty nuclei”, GLOW conference, London.

- (1990b). "License to govern", *Phonology* 7.2.
- (1991). Conditions on phonological government, CUP.
- Dell, F.(1973). *Les règles et les sons: introduction à la phonologie générative*, Hermann, Paris.
- Gussmann, E.(1980). *Studies in Abstract Phonology*, The MIT Press, Cambridge.
- Harris, J.(1990). "Segmental complexity and phonological government", *Phonology* 7.2.
- Kaye, J.D.(1989). *Phonology: a cognitive view*, Lawrence Erlbaum Associates, Hillsdale, NJ.
- (1990a). "Government in Phonology: the Case of Moroccan Arabic", *The Linguistic Review* 6.
- (1990b). "Coda Licensing", *Phonology* 7.2.
- (1991). "On the incoherence of the notion "Phonological Segment"", UCL Postgraduate Seminar, London.
- Kaye, J.D., M. Ech-chadli & S. El Ayachi(1986). "Les formes verbale de l'arabe marocain", *Revue Québécoise de Linguistique* 16.
- Kaye, J.D., J. Lowenstamm & J.-R. Vergnaud(1985). "The internal structure of phonological elements: A theory of Charm and Government", *Phonology Yearbook* 2.
- (1988). "Constituent structure and government in phonology", *Linguistische Berichte*, also in *Phonology* 7.2(1990).
- Kiparsky, P.(1982). "From cyclic phonology to lexical phonology", in *The structure of phonological representations*(Part I), H. van der Hulst & N. Smith(eds.), Fortis, Dordrecht.
- Noske, R.(1982). "Syllabification and syllable changing rules in French", in *The structure of phonological representations* (Part II), H. van der Hulst & N. Smith(eds.), Fortis, Dordrecht.
- Rubach, J.(1984). *Cyclic and Lexical phonology: The structure of polish*, Fortis, Dordrecht.
- (1985). "Lexical phonology: lexical and postlexical derivations", *Phonology Yearbook* 2.
- Rubach, J. & G.E. Booji(1985). "A grid theory of stress in Polish", *Lingua* 66.

- Selkirk, E. (1978). "Comments on Morin's paper: The French foot: on the status of "mute" e", *Studies in French Linguistics*, 1.2.
- Spencer, A.(1986). "A non-linear analysis of vowel-zero alternations in Polish", *Journal of Linguistics* 22.
- (1988). Vowel-zero alternations, London phonology Seminar, SOAS, London.
- Yoshida, Y.(1990). "Government in Tongkawa: Vowel Elision and Cyclicity", Working papers in Linguistics and Phonetics 1, SOAS, University of London.

ABSTRACT

The Government Approach to the Empty Nucleus

Heo, Yong

According to Government Phonology, all phonological positions save the domain's head must be licensed in order to appear in the syllable structure. A non-nuclear head is licensed by the following nucleus, and the nuclei with phonetic content are licensed through government by the nuclear head of the domain at the level of the nuclear projection. Therefore, in the theory of Government Phonology it is claimed that words always end with a nucleus. With regard to the licensing of empty nuclei, Kaye(1990a) proposes the 'Empty Category Principle' and its sub-theory of 'Projection Government'.

Government Phonology claims that a nucleus which dominates a vowel that regularly undergoes elision in certain contexts is underlyingly empty. This underlying empty nucleus is not manifested phonetically when it is properly governed by an unlicensed(i.e. a nucleus filled with a full vowel). It is when proper government fails to apply, that the empty nucleus is

phonetically interpreted.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present a principled account of the process of [i]↔∅ alternation in Korean. Following Kaye's proposal, we assume that [i] of Korean is underlyingly empty. This position is pronounced as [i] if it is unlicensed, and is not phonetically realized if it is licensed.

Empty nuclei are divided into two categories: domain-internal and domain-final. Firstly, we consider the question why Korean has little word ending with [i]. As for this, ECP states that domain-final empty nuclei are not pronounced if the language licenses domain-final empty nuclei. Whether a final empty nucleus may occur in the structure is parametric variation. This property is seen from the fact that words may appear to end in consonants in this language. Since Korean abounds with words ending in a consonant, it licenses domain-final empty nuclei. Therefore, it is quite natural that Korean has little word ending with [i]. Secondly, word-internal empty nuclei of Korean respect proper government and inter-onset government. That is, an empty nucleus in word-internal position will be pronounced with the vowel [i] if either proper government or inter-onset government fail to apply. Inter-onset government refers to the government established between two onsets across an empty nucleus. Thirdly, we consider words ending with [i], which seems to be exceptional to the final licensing. Most of them are either mono-syllabic verbs (for instance, [s'i-] 'to write') or derived adjectives ending with [p'i-] (for instance, [kip'i-] 'be happy'). As for the former, the 'inaccessibility for proper government' is applied because the empty nucleus appears in the first syllable. In latter case, domain-final empty nuclei are pronounced as [i] because of government-licensing. That is, final empty nucleus is pronounced to license the preceding onset dominating negatively charmed segments which empty nucleus of Korean cannot license.